

대응일치분석을 이용한 4년제 대학졸업자들의 취업훈련기관별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채희원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The Determinants of Labor Market Outcomes in Four-year graduates throug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Correspondence Analysis By training institution

Chae Hee Won

The Graduate School of Vocational, Kyongg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 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성과 요인을 고찰하고, 훈련기관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가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첫 일자리 이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성과요인을 분석하였다. 노동시장 성과를 각각 (1) 첫 일자리 이행기간 (2) 고용형태 (3) 임금수준으로 명명하였다. 응답자가 취업을 위하여 훈련받은 기관의 특징가진 명목변수와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양자 간의 연관성을 가시적인 방법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결과 첫째,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가장 짧은 훈련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사설학원, 대학 순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고용형태 별로는 공공기관은 사설학원과 대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일용직의 비율이 높았다. 셋째, 임금수준 별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수준 1범위에서 3범위까지의 분포를 보였고, 사설학원의 경우는 임금수준 2범위에서 4범위까지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층의 사회진출 시 훈련기관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분석해 볼 수 있어, 훈련기관별·청년층 구직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고용과 교육·고용복지를 포괄하는 정책이 확충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formance factors for entry into the labor market of 4 - year college graduates using KEEP data and to determine how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is related to the training institutions.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is termed as 1) labor market entry time, 2) employment type, and 3) wage. Correspondence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a nominal variable indicating the characteristics of a training institute, in which the respondents were trained for employ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as expressed in a more visible way.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irst job transition period, the shortest training institutes were analyzed as public institutes, followed by private institutes and universities. Second, the employment rate of the public institutions is higher than that of private institutes and universities. Second, the employment rate of public institutions is higher than that of private institutes and universities. Third, the wage level of public institutes ranged from wage level 1 to 3, while private institutes had a wage level ranging from 2 to 4. Universities showed a wide range from 1 to 5.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can analyze the difference in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by training institutions when young people enter society.

Keywords : Training institution, Labor Market Outcomes, Correspondence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Chae Hee Won (Kyonggi Univ.)

Tel: +82-10-4306-4896 email: passionjob@naver.com

Received February 14, 2017

Revised (1st March 13, 2017, 2nd April 5, 2017)

Accepted April 7, 2017

Published April 30, 2017

1. 서론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질 높은 생활수준과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년층의 불안한 사회 진출로 ‘불안정한 세대’로 여겨지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만 15~29세가 대상이 되는 청년실업률이 2013년 8.5%로 3.0%의 전체 실업률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1], 2016년에는 9.5%로 역대 최고의 두 자리 수 진입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취업자 증감폭도 2000년 금융위기 이후 20만 명대로 기록되며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개인은 물론 가정과 국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2].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확실적인 취업준비에서 벗어나 성과 및 개인별 우선순위, 흥미, 구직활동, 일자리 정보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평생 직업생활 로드맵을 그리고 직업 환경 직업 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3]. 또한,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성과를 노동시장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이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시기이자, 탐색기인 청년기 노동특성, 고학력의 과잉스펙으로 임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조건을 고려했을 때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으로의 성과는 일자리의 이행과 더불어 임금수준을 통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측정할 필요성을 가진다. 또한 임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자본의 변수가 영향력이 크다는 관점에서 원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르는 노동시장 성과 차이를 주목하여야 한다. 현실 속에서 청년층이 겪고 있는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것이기 때문에 청년의 가구 경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4]. 이에 따라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학, 사설학원 등에서 직업 및 취업 교육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 청년층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교육지원서비스가 활성화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요인을 첫 일자리 이행기간, 고용형태, 임금수준으로 선정하여 훈련기관별로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각 변수를 기준으로 하여, 응답자가 취업을 위하여 훈련받은 훈련기관의 특징을 나타내는 명목변수와 대응일치분석을 통하여 명목변수 간의 연관성을 가지적으로 제시하였다. 훈련기관별 노동성과 자료를 토대로 각 기관의 취업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청년층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

회정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본론

2.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1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요인

전 생애의 영향을 미치는 청년층 노동시장성과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5]. 청년층의 낮은 노동시장 성과는 노동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동시장으로 이행 후 초반경력은 노동생애의 상처(Scar)로 작용할 수 있어 첫 일자리 수준이 그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6].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들, 주로 패널자료(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한국교육고용패널, 청년패널, 한국노동패널 등)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 취업여부, 임금수준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7].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GOMS) 중 취업에 대한 준비 노력이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8]. 또한 같은 자료를 활용한 황여정은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요인으로 취업 및 대기업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 학점, 취업관련 대학지원활동, 대학소재지에 대한 만족도, 어학연수 지출비용, 졸업하기 전 취업목표를 설정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취업관련 훈련 등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냈으며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가 단순히 개인의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귀속적 요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침을 규명 하였다[9].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귀속적 요인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직업 및 취업훈련 기관이 노동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기관별 노동시장 성과를 첫 일자리 이행기간, 고용형태, 임금수준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훈련기관별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2.1.2 교육 및 훈련 경험

교육 및 훈련은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변수임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높은 학력일 경우 미취업이기 보다는 취업할 가능성이, 비정규직이기 보다는 정규직일 가능성이, 외부 노동시장이기 보다는 내부노동시장에 소속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리고 높은 임금수준일 가능성이 크다고 나타낸다[10]. 2013년 대학생 취업 사교육의 취업 및 임금효과 분석은 어학관련 사교육이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고, 최소 1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이루어 질 때 취업 및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11]. 2016년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분석 연구에는 대학서열별 집중 하는 취업사교육의 교육훈련주체가 상이함을 밝히며, 대학생활 동안 자신이 진입가능한 노동시장에서 높게 평가 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사교육에 참여 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12].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직업훈련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의 취업 성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취업한 이들에 한정하여 살펴본 근속기간에 대한 영향에서 직업훈련의 긍정적인 효과가 관측되었다.[12]. 직업 훈련은 훈련 참여자의 수준을 제고시켜 근속기간을 장기적이게 하거나 높은 임금수준을 나타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직업 훈련에 관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장기적으로 임금상승의 효과를 추정한다[13]. 직업 및 취업훈련의 효과성을 교육지원 기관별로 노동시장성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각 기관별 향후 취업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은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연구 설계하였다.

2.2 연구방법

2.2.1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의 자료 중 고등학교 3학년 (2004년) 코호트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은 전국 6,000명의 학생 및 담임교사와 학부모를 표본으로 2004년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조사 진행 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6차년도에서 10차년도 조사시점에 국내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중 훈련기관의 도움을 받아 취업한 취업자 382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2.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독립변수는 국내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중 훈련기관의 도움을 받아 취업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훈련기간을 공공기

관(고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구청, 복지관 등)의 도움을 받은 경우, 사설학원(생산성본부, 능률협회 등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의 훈련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 대학의 도움을 받은 경우로 설정하였다. 중복적으로 참여하여 도움을 받은 경우는 '0'으로 코딩하여 제외하였다. 첫 번째 종속변수는 첫 일자리 이행기간으로 대학졸업 이후 첫 일자리를 갖기까지 걸린 기간을 의미한다. 대학 졸업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첫 일자리의 지속기간에서 졸업 시점의 차이로 계산하였다. 졸업 전에 취업을 한 경우는 '0'으로 하여 좌측 절단 된 코드 값으로 처리했으며, 졸업 한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번도 일자리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하여 우측 절단 하였다. 두 번째 종속변수는 고용형태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하여 이용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임금모형의 종속변수는 임금수준을 5분위로 구분하여 1분위는 월 0에서 99만원, 2분위는 월 100만원에서 149만원, 3분위는 월 150에서 199만원, 4분위는 월 200만원에서 249만원, 5분위는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였다.

Table 1. Variable Description

	variable	unit
subordination variable	First job Transition period	Up to first job after graduation
	Employment status	1=Regular workers 2=Temporary workers 3=Daily workers
	wage level	1=(0-99) 2=(100-149) 3=(150-199) 4=(200-249) 5=(250-300)
Independent variable	training institution	1= Public institutions 2= Private agency 3= University

2차적으로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대응일치분석을 실시하여 양자 간의 연관성을 보다 가시적인 이미지 맵 방법으로 나타내었다.

2.2.3 연구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첫째, 4년제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노동시장 성과는 취업을 위해 도움을 받은 훈련 기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2.3 연구결과

2.3.1 훈련기관별 노동시장 성과 비교

2.3.1.1 첫 일자리 이행기간

여기서는 훈련기관별 첫 일자리 이행기간을 보여준다. 졸업 후 첫 일자리를 가진 기간까지를 의미하는 첫 일자리 이행기간은 전체 평균 1.36년이었다. 이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를 활용하여 이행기간을 약 7월로 분석한 천영민(2012)의 연구와 약 6개월 지연된 결과를 보인다.[14] 훈련기관별 이행기간을 살펴보면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가장 짧은 훈련기관은 공공기관으로 평균 0.71년 만에 첫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설학원은 평균 1.45년, 대학은 1.76년으로 나타났다.

Table 2. First job Transition period (Performance)
(unit : year)

	training institution	Average monthly wage				
		N	M	SD	SE	F
First job Transition period	Public institutions	35	0.71	0.46	0.77	16.50***
	Private agency	95	1.45	0.80	0.82	
	University	37	1.76	1.04	0.17	
Total		167	1.37	0.87	0.07	

***p<.001

2.3.1.2 고용형태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상용직의 비율은 69.5% 임시직은 18.0%, 일용직은 12.4% 였다. 훈련기관별로 살펴보면 상용직 비중이 가장 높은 훈련기관은 대학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일용직의 비중이 다른 교육 기관에

Table 3. Employment status

	N	(First-Wage Employee) Employment status			Total	χ ²
		Regular workers	emporary workers	Daily workers		
Public institutions	N	17	7	19	43	51.561***
	%	39.5	16.3	44.2	100.0	
Private agency	N	83	21	9	113	
	%	73.5	18.6	8.0	100.0	
University	N	62	14	1	77	
	%	80.5	18.2	1.3	100.0	
Total	N	162	42	29	233	
	%	69.5	18.0	12.4	100.0	

***p<.001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종속변인 중 첫 일자리 이행기간 중 공공기관은 가장 빠른 이행기간을 보였지만 고용형태의 질을 기준으로는 일용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3.1.3 임금수준

훈련기관별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경우 평균 109.68로 임금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사설학원 138.63, 대학은 150.44로 나타났다. 대학기관에 도움을 받은 학생들의 평균은 타 기관의 도움을 받은 학생들보다 임금수준이 높음을 볼 수 있다.

Table 4. Wage (unit : Ten thousand won)

Division	Average monthly wage				
	N	M	SD	SE	F
Public institutions	59	109.68	57.81	11.56	4.52*
Private agency	68	138.63	50.86	4.59	
University	53	150.44	53.62	9.48	
Total	180	136.71	53.36	3.98	

*p<.05

2.3.2 대응일치분석

대응일치분석은 다 변량분석기법 중 하나로서 두 개 이상의 범주 간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중 분할표(contingency table)를 이용하여 집단명목변수들 간의 관계를 단순한 차원으로 도표화 하여 나타내어 연관관계를 가시적으로 파악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대응일치분석은 기존의 다 변량분석기법과는 다르게 자료 분표에 대한 가정이 없이 다양한 종류의 집단변수(명목, 서열, 이분)들 간의 거리 계산을 하여 변수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 한다. 대응일치분석은 응답자와 변인들 조건사이 관계를 거리와 위치로 분석하여 도표 상으로 나타내는 강력한 강점을 가진다[15].

2.3.2.1 훈련기관별 첫 일자리 이행기간

대응일치분석을 통해서 훈련기관별 첫 일자리 이행기간을 가시화하여 연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세 변수간의 첫 일자리 이행 기간을 대응일치분석을 통해서 보면 1개 차원일 때 67.0%, 2개차원일 때 100%가 설명되고 있다. 2개차원의 설명력이 70% 이상 되어야 행열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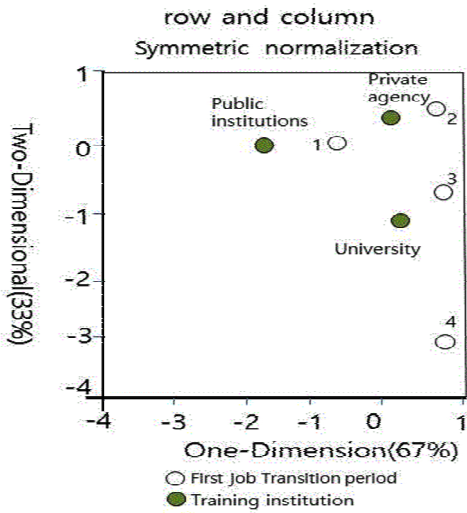


Fig. 1. Correspondence Analysis(First job transition period)

2.3.2.2 훈련기관 별 고용형태

대응일치분석을 통해서 훈련기관별 고용형태를 가식화하여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세 변수간의 고용형태를 대응일치분석을 통해서 보면 1개차원일 때 83.0%, 2개차원일 때 17.0%가 설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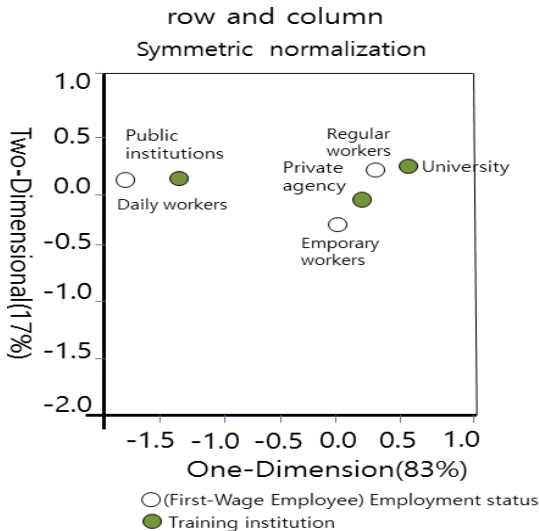


Fig. 2. Correspondence Analysis(Employment status)

2.3.2.3 훈련기관 별 임금수준

임금수준을 5등분하여 대응일치분석을 실시하여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훈련기관별 소득요인 분할표는 다

음과 같다.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수준 1범위에서 3범위까지의 분포를 보였고, 사설학원의 경우는 임금수준 2범위에서 4범위까지 높은 분포를 보였다. 대학은 1범위에서 5범위까지 폭넓은 범위를 나타냈다.

Table 5. Wage level

Division	wage					Sum
	wage 1	wage 2	wage 3	wage 4	wage 5	
Public institutions	10	11	35	3	0	59
Private agency	3	49	11	4	1	68
University	19	12	3	12	7	53
Sum	32	72	49	19	8	180

세 변수간의 고용형태를 대응일치분석을 통해서 보면 1개차원일 때 97.0% 2개차원일 때 3.0%가 설명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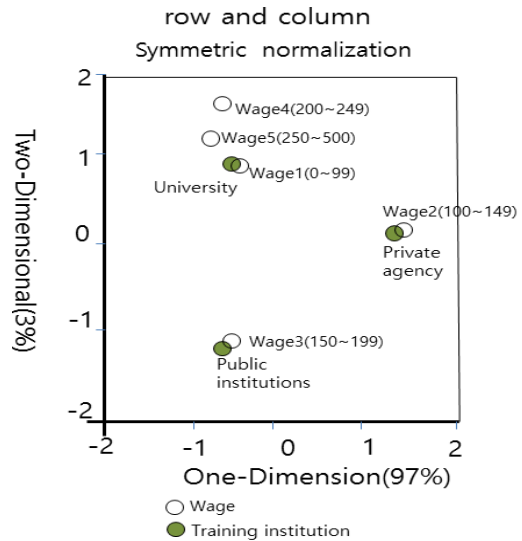


Fig. 3. Correspondence Analysis(Wage level)

3. 결론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성과 요인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고등학교 3학년 (2004년) 중 훈련기관의 도움을 받아 취

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첫 일자리 이행기간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사설학원, 대학기관 순으로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분석되었다. 공공기관이 0.71년으로 가장 짧았고 대학기관의 도움을 받은 학생은 1.76년으로 이행기간이 늦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원인을 분석하고자 고용형태와 임금수준 상태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훈련기관 도움별로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가장 짧은 공공기관의 경우 일용직의 비중이 가장 크게 분석되었고,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가장 긴 대학의 경우는 상용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임금수준을 5단계로 나누어 훈련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일용직이 높게 분포된 공공기관 도움 받은 학생의 임금분포는 임금수준 1범위에서 3범위까지의 분포를 보였고, 사설학원의 경우는 임금수준 2범위에서 4범위까지 높은 분포를 보였다. 대학은 1범위에서 5범위까지 폭넓은 범위를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정리한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및 교육기관의 취업 지원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훈련과정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 첫 일자리 이행기간은 타 기관의 도움 받은 학생과 비교 하여 짧다. 하지만 고용형태와 임금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용직의 분포가 높고 임금수준이 낮음을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취업지원 사업의 예로 그 사업운영 지침을 보면 1년의 사업기간 중 1인의 직업상담사가 120명까지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활동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반대로 대학과 사설학원의 도움을 받은 학생들은 첫 일자리 이행기간은 다소 길지만 상용직 고용형태의 비율이 높았고 임금수준의 분포도 상위임금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기관의 취업지원에 대한 질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상용직 및 임금수준을 상향 이동시킬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구직자들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활용하여 선행된 천영민(2012)의 연구 결과인 약 7개월보다 길어진 평균 1.36년으로 분석 되었다. 2017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2013년 9.3% 부터 4년 동안 지속적 오름세로 2017년 최고 수준인 10.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높아진 실업률과 첫 일자리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졌다는 분석 결과는 청년구직자들의 미취업탈출의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첫 노동시장 이행 기간이 빠른 것이 노동시장 성과로 볼 수 없음이다. 첫 일자리 이행 기간이 높다고 하더라도 상용직 등 안정적인고 장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분포는 낮게 분석되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는 노동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첫 일자리 수준이 지속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학 중 취업 준비 노력이 효과적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함의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8]. 또한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가 개인의 역량만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취업 훈련기관의 지원활동 등의 귀속 요인이 필요함을 지지한다[9].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훈련기관이 첫 일자리 이행 기간의 단축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양질의 취업지원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의 사회 진출을 도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공공기관의 직업상담사는 상담이라는 고유한 업무 외에 과도한 행정과 취업실적위주의 평가, 민원 업무, 행정 업무와의 갈등 등 상담업무 전문성 개발이 어렵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16]. 직업상담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활동 하면서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취업목표설정 에 관한 연구는 취업목표설정 에 있어 학생들 중 일부는 직장목표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취업을 위한 임기응변적이고 편향된 선택을 하거나 아직도 자신의 개성이나 직무내용보다는 안정성이나 직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17]. 구직자들이 조기에 진로 목표를 설정 가능 할 수 있도록 취업이 목적이 아닌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설정 할 수 있는 조기 취업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훈련기관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가 어느 정도의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탐색하여 청년구직자들의 노동시장 성과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의 현상과약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또한 실업률과 고학력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상황이 치열하게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일자리 탐색기간과 준비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빠른 이행이 높은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함의를 가지고,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대응일치분석을 통하여 행과 열의 공간상 대응관계를 2차원으로 요약, 시각화하여 관계를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패널자료의 특성상 표본에서 탈락한 사례가 많아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훈련기관별 교육내용 특성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필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훈련기관별로 파악함으로써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간과정의 결과임을 밝힌다.

References

- [1] Geumsun Byun, "The Determinants of Labor Market Outcomes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vol. 18, no. 1, pp. 129-161, 2015.
- [2] Yuong-Ran, Yoon. "The study on the career recognition of the university student", The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Research, vol. 13, no. 1, pp. 123-168, 2007.
- [3] Bong-whan,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Seoul University Ph. D., Thesis, 1997.
- [4] Geumsun Byun, "The Determinants of Labor Market Outcomes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vol. 18, no. 1, pp. 129-161, 2015.
- [5] Geumsun Byun, "The Determinants of Labor Market Outcomes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vol. 18, no. 1, pp. 129-161, 2015.
- [6] Byung Hee Lee, "A study on the substantiality of early experience of labor market",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vol. 2, no. 1, pp. 1-18, 2002.
- [7] Geumsun Byun, "The Determinants of Labor Market Outcomes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vol. 18, no. 1, pp. 129-161, 2015.
- [8] ChangKyun Chae, TaeGi Kim, Determinants of Employment Status Of University(Bollege) Graduates You,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28, no. 2, pp. 89-107, 2000.
- [9] Yeo-jung Hwang, "Byoung-bu Baek, Determinants Status of University Graduates Youth",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vol. 11, no. 2, pp. 1-23, 2008.
- [10] Yeo-jung Hwang, "Byoung-bu Baek, Determinants Status of University Graduates Youth",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vol. 11, no. 2, pp. 1-23, 2008.
- [11] Min-sun Kim, "A Study on the Employment and Wag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The Educational Research for Tomorrow, vol. 26, no. 1, pp. 21-42, 2013.
- [12] Min-sun Kim, "A Study on the Employment and Wag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The Educational Research for Tomorrow, vol. 26, no. 1, pp. 21-42, 2013.
- [13] Kyung Jun You, Chang Hee Kang, "The Impacts of Vocational Training on Earnings in Korea", Evidence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vol. 32, no. 2, pp. 27-53, 2010.
- [14] Young-min, Cheon, "The Actual Conditions and Influencing Factors of the First Job Performance of College Graduates", Employment and Career Research, vol. 6, no. 2, 2012.
- [15] Byoun, Su-youn, "An Exploratory Study on College experience of the Korean Graduates throug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Correspondence Analysis", The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25, no. 1, pp. 1-27, 2013.
- [16] Min-gyu Kim, "The Influences of Job Environ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Vocational Counselors Working at Employment Centers : Mediating Effects of Professional Identity",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vol. 17, no. 3, pp. 23-45, 2015
- [17] Yoon joong Kim, "An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employment goal setting to university student'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 11, 2015. DOI: <http://doi.org/10.5762/KAIS.2015.16.11.7293>

채 희 원(Chae Hee Won)

[정회원]



- 2007년 2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직업학석사)
- 2016년 8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3년 3월 ~ 현재 : 경기대, 동국대, 삼육대 출강
- 2015년 3월 ~ 현재 : 한국 NCS 이사

<관심분야>

직업심리, 직업정보, 직업기초능력, 노동경제